

일주문



오름 한국인 그랑프리 수상
재단법인 불교인양원 이사장 덕해 스님(인양 보장사 주지)은 최근 한국일보사 주최 '2009 대한민국 오름 한국인 그랑프리 사회공헌 부문'에 선정됐다.



인양교도수계식
인양교도수계식 불교종교위원회장 현성 스님(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은 4월 27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150명에게 불자수계식을 봉행한다.



한양대종사 탄신 134주기 행사
월정사 회주 현해 스님은 4월 22일 오전 9시30분 한양대종사 탄신 제134주기 탄신대례 및 한양만도회 제38차 정기총회를 봉행한다. (033)332-6661



해암·벽초 대선사 합동 추모대례
수덕사 주지 용산 스님은 4월 23일 오전 10시 수덕사에서 해암(음 3월 27일)·벽초(음 29일) 대선사 추모대례를 봉행한다. (041)337-6565



호국 장영사서 심선계 범문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4월 5일 전북 임실 제6관악창 호국 장영사 법당에서 군장병 120여 명에게 심선계를 설했다.



49일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 입재
일산 덕양선원장 범상 스님은 4월 13일~5월 31일 제24차 49일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 입재를 실시한다. (031)907-7172



동국대 미래기획위원회 발족
동국대 오영교 총장은 4월 2일 교내 상록원에서 미래기획위원회를 발족했다. 미래기획위원회에는 홍순직 교문(삼성전자)이 위촉됐다.

월운 스님 동방대학원대서 명예박사

역경보살 월운 스님(불선사 조실·사진)이 역경사업 공로를 인정받아 동방대학원 대학(총장 정상욱)에서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동방대학원대학은 4월 18일 오전 11시 교내 사자후전에서 월운 스님의 명예철학박사 학위수여예를 봉행한다고 9일 밝혔다. 동방대학원대학 백익기 전략기획처장은 "월운 스님은 일생을 역경사업에 헌신하며 한국문화의 전승과 발전, 불교의 현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며 "동방문화의 장달과 계승이라는 동방대학원대학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공로가 인정돼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월운 스님은 현재 불선사 조실과 능엄학림 강주 등을 역임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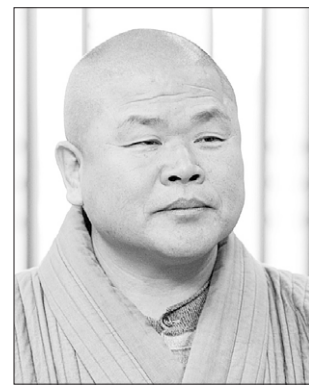
“척박함 속에 살린 제주불심 활활 태울 터”

제주 관음사 창건 100주년 행사 여는 원종 스님

“근세 제주불교의 태동이 101년을 맞았습니다. 선배 스님들이 일궈온 제주불심이 융성하도록은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주 관음사 창건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 중인 관음사 주지 원종 스님은 “이번 기념행사를 계기로 관음사뿐만 아니라, 제주 불교의 미래를 모색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예부터 제주도는 섬의 특성상 무속이 발달한 외래종교 반발심과 고려에 와서야 본토에 완전히 복속된 역사로 불교 또한 융성했다. 무속 근저에 불교가 깔려 있을 때 ‘절(寺) 500, 당(堂) 500’란 말까지 있었지만, 조선초 1702년 이형상 제주목사의 폐불로 불교 관음사는 5월 23일~6월 23일

가 사라지다시피 했다. 불교신도가 강세를 띠는 현재 제주불교가 있기까지는 안봉려관 스님이 관음사에 주석(해월굴)한 1908년까지 200여 년이 필요했다.
2007년 12월 관음사 주지로 임명돼 지난해 제주불교신문 발행인도 겸하고 있는 원종 스님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도량과 불심을 가꾸은 조사스님을 비롯한 수많은 스님들의 원력을 이어받는 것은 후배의 몫”이라며 “2008년 창건 100주년을 맞이했지만 여러 문제로 올해 행사를 갖게 됐다. 그만큼 더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승초청법회를 열고, 제주포교 활성화에 나서며, 6월 20일 안봉려관 스님 추모대례 및 100주년 법회, 6월 27일 100주년 기념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제주불교사를 조명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10일에는 ‘한라산 영산대제 및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봉행하고, 12월 31일에는 100주년 기념 산사음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4월 19일 원종 스님은 직지사 선원장 정목 스님, 실상사 백장암 선원장 정견 스님, 고관사 등 제주지역 사찰 스님들과 함께 신촌 해안가-삼양 불탑사-월북 보덕사를 거쳐 사라봉 사자사까지 순례하는 ‘제주섬 걷기순례’를 개최하고 이날 ‘4



·3사태’ 영령 염불의식도 봉행할 예정이다.
원종 스님은 “수행과 더불어 사회에 회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도민들과 함께 지역 스님들이 포행(布行·걸으며 참선하는 것) 하교자 한다”며 제주불교의 행보에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생명중심 개발로 전환해야”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현각 스님

“이명박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케이블가 사업을 중단하고, 4대강 정비사업도 정밀 환경조사부터 실시하라.”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 집행위원장 현각 스님은 4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 열음골, 갯바위 팔공산 등 각 지자체 케이블가 설치 움직임과 맞물린 정부의 개발지상주의를 규탄했다.
현각 스님은 “관광자원화를 앞세운 경제우선주의에 지리산, 팔공산, 설악산 등 우리의 소중한 명산이 케이블가 같은 인위적 시설로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 케이블가로 인해 노선일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근 사찰 수행환경까지 훼손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전국 명산 11개소 케이블가 설치로 표출된 각 지자체의 건설열기가 우이령 자동차도로 설치, 화성 불림사 등 고찰 주변 공간전탈허가까지 번지고, 자연공원법 개정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불교환경연대는 각 환경단체와 해당 사찰과 연계해 강력히 저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불교환경연대는 △청와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 중지속공문·책자를 발송하고 △케이블가 설치지역에 대한 문화재·환경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의 DMZ라 불리는 우이령의 자동차도로 설치에 관해서는 인근 사찰인 오봉산 석굴암 등과 4월 12일부터 도봉산 등산로 입구 등지에서 서명운동 등을 시작했고, 생태의식 고취를 위해 19일 10시 조계사 환경법회를 시작으로 매일 전국 유명사찰에서 환경법회도 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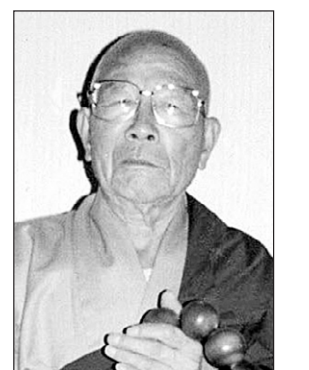


현각 스님은 “인간의 편리성 추구에서 생명중심 개발로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자금과 같은 개발은 자연, 역사문화유적을 훼손하고 결국 인류생존도 위협할 것”이라며 환경의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상연 기자

동산도환 스님 입적

4월 10일 수덕사에서 다비

만공 스님의 법손 동산당(東山堂)도환 스님(道煥·사진)이 예산 수덕사에서 4월 8일 오전 9시 40분 원적에 들었다. 세수 96, 법납 81세.
스님의 다비식은 10일 수덕사에서 봉행됐다.
동산 스님은 만공 스님의 수제자 보월 스님의 전법제자로 1929년 정혜사에서 사미계를, 1935년 서울 선학원에서 보살계를 수지했다. 만공 스님은 수제자 보월이 제자 금오 스님에게 전법조차 못하고 입적하자 보월을 대신해 금오 스님과 동산 스님에게 직접 전법계를 내렸다. 보월 스님이 불과 40세의 나이로 열반하자 만공 스님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고, 대중살법 도중 피를 토하는 듯 울며 애통해 했다.
1940년 마곡사에서 대덕법계를, 1942년 중덕 법계를 품수한 동산 스님은 덕운산 정혜사 주지와 서산 천장사 주지 등을 두루 역임하며 여불선 수행에 힘써왔다. 조동섭 기자



동산 스님은 원적에 들며 ‘안향고가귀(安鄕古家歸)’라는 임종계를 남겼다.
“마음 법은 본래 여여해(心法本如如)/마음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법을(非法非法)/ 동산에게 분부하니(分付東山子)/ 꽃구름 속에 청산은 침침하고(花雲靑山重)/ 흰구름은 청산을 난다(靑山白雲飛)/ 날마다 구름과 산을 벗삼던 이가(日雲山作伴)/ 편안한 고향 옛집으로 돌아가네(安鄕古家歸).”

동화사 1박2일 단기출가 동자승 식발식



대구 동화사(주지 허완)는 4월 2일 대구지역 불교유치원 원아 11명을 대상으로 동자승 식발식을 봉행했다. 1박2일 단기출가한 동자승들은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는 ‘어린이오계’를 받았다. 순법천대구사장

동림회 東大 불교대학원과 장학협정 체결



출가공동체 동림회(회장 중후)는 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혜원)과 4월 6일 장학협정을 체결했다. 동림회는 이날 불교학과 무현 스님 외 2명의 학인스님에게 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조계종삼화불교 관촉사서 기도법회



불교조계종삼화불교 총무원장 해인 스님은 4월 7일 충남 논산 관촉사에서 소원성취 기도법회를 봉행했다. 70여 종단 스님들과 700여신도는 은진미륵불전에서 법회 후 갑사로 이동, 대자암 무문관을 참배했다.

장기요양시설 자비원 개원... 산신각 낙성



태고종 진천 자재암(주지 혜성)은 4월 9일 태고종정 혜초 스님, 중앙종회부의장 원봉 스님 등 스님들과 신도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기요양시설 자비원 개원식과 자재암 산신각 낙성식을 봉행했다. 혜철총창사장

인천교직원불자회 창립법회 봉행



인천교직원불자회는 4월 7일 인천불교회관에서 인천불교회관 주지 일지 스님, 이병용 인천 북부교육장 등 40여 명과 함께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인천교직원불자회는 매월 2, 4주 화요일 정기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임원공고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종정 자운 청봉 대종사

종정 사서실장 혜오

원로위원장 덕신 운암 원로위원 남곡 구담, 혜원 비구니원로위원 지성

중앙총회의장 도균 대현

총무원장 월산 해봉

중앙연수원장 김산 법전 교육원장 지오 교육부원장 월오

비구니원장 아산 비구니부원장 정혜

법사위원장 성혜

법사위원 보광, 염상, 이광해, 이경희

감찰부장 운오 재무부장 법련 문화부장 운산

기획부장 일봉 기획국장 도경

경남총무원장 석봉 경북총무원장 호상 모원 울산총무원장 능현

전북총무원장 도암 경기총무원장 호산 통영총무원장 짐은

경남포교국장 원공 경남양산포교부장 지운 경기포교국장 도현

중도일동

총무원 : 연봉사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 해봉스님 직통 011-545-5060

추 원효보살 열반 1323주기 추모대재 모

진리의 새벽을 여신 우리의 스승 원효보살 열반대재에 불자여 함께 모여 추모 합시다

일시 : 불기2553(2009)년 4월 20일 오전 11시 장소 : 원효보살 성상암 (용산구 효창공원에)

대한불교원효종 봉행위원장 향운 합삼 연락처 : 02)735-0501~2